



## 워케이션 참여자의 관광경험 고찰\*

### Examining the tourism experiences of Workation travelers

이진희\*\* · 김남조\*\*\*

Lee, Jin-Hee · Kim, Nam-Jo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워케이션 개념을 고찰하고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이론적 표본추출을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워케이션 참여자 중 업무활동과 관광활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자료는 2022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터뷰를 통하여 16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93개의 개념, 24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가 발견되었다. 워케이션은 관광, 업무, 일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복합적 개념으로 밝혀졌다. 기존 관광과 차별되는 특성으로는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관광경험이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체류 관광경험'으로 분석되었으며 'TWD(tourism+work+daily) 장기체류 이론'이 생성되었다. 이 연구는 워케이션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범위를 관광-업무-일상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워케이션을 관광과 업무의 이분법적 범위로 구분하던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관광경험과 차별화되는 워케이션만의 관광경험 특성을 밝혀내고 이론을 생성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정책적 및 실무적으로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워케이션을 지역관광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관광 및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서 워케이션을 논의하였으므로 관광산업의 혁신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용어:** 워케이션, 지역관광, 관광트렌드, 디지털 노마드, 포스트모더니즘, 근거이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workation and develop a theory accordingly. Grounded theory was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oretical sampling was used as the sampling method.

Received April 10, 2023 Revised Novem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17, 2023

\* 이 연구는 주저자 이진희의 박사학위논문(2023)을 재구성하였으며 제93차 한국관광학회 인천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doctoral dissertation by Jin-Hee Lee(2023)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that was presented at the 9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한양대학교 100세 시대의 트랜스포메이션 관광교육연구팀 BK연구원. [jhhi22@hanyang.ac.kr](mailto:jhhi22@hanyang.ac.kr)

Ph.D. in Tourism, Researcher, Transformation tourism education-research team for Homo Hundred Era,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njkim@hanyang.ac.kr](mailto:njkim@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Koreans who had engaged in workation activities within the past year, selected based on their level of involvement in both work and tourism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16 individuals through two rounds of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2nd and October 13th, 2022. The analysis yielded a total of 93 concepts, 24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Workation was found to be a convergence concept that encompasses tourism, work, and daily life. Attributes that differentiate it from existing tourism include proactive, impromptu, independent, local, and daily tourism experiences. The core category emerged as 'tourism + work + everyday long-term tourism experience as a new stimulus,' leading to the formulation of the 'TWD (Tourism + Work + Daily) long-term stay theory.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ior research by departing from a binary categorization of workation as either work or tourism. Instead, it explores the concept of workation within the context of a blend of tourism, work, and daily life. Furthermore,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its revelation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experiences associated with workation, setting them apart from conventional tourism experiences, and subsequently proposing a theory to capture these distinctions. From a poli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this research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leveraging workation to stimulate regional tourism, as evidenced by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innovativ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by proactively addressing emerging social phenomena and discussing workation as a new and local tourism trend.*

**Key words :** Workation, Regional tourism, Tourism trend, Digital nomad, Postmodernism, Grounded theory

## I. 서 론

관광의 경계가 와해되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를 상징하는 모더니즘과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정신을 일부 이어가는 사상적 조류를 의미한다. 이 조류 아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가 있다. 해체주의는 형식성의 와해를 주장한다(Hassan, 1985; Yin, 2018). 오늘날의 관광은 기존 규격을 탈피하여 비고정성(dis-embeddedness)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 경계는 일상 생활권과 관광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공간적 경계의 와해는 COVID-19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COVID-19 이후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전 세계 원격근무 비율은 COVID-19 이전 약 15%에서 2021년 약

30%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6%가 향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것이라고 나타났다(Statista, 2023).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업무트렌드로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가 등장하였다. 디지털 노마드는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비대면 원격직업자를 의미하며(Hermann & Paris, 2020) 관광과 업무를 융복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원격 근로자와 차별화된다. 디지털 노마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업무형태는 워케이션(workation)이다. 워케이션은 업무(work)와 방학(vacation)의 합성어로 휴양지나 관광지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Matsushita, 2021). 인근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20년 699억 엔에 머물렀던 워케이션 시장은 2025년 3,622억 엔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KOTRA, 2021). 국내에서 워케이션은 디지털 혁신으로 나타나는 관광트렌드이며 동시에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Shin et al., 2023). 이는 워케이션이 일상과 관광의 경계를 와해하는 새

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케이션의 개념 및 위케이션 관광경험 특성은 무엇인가? 위케이션은 대부분 실무적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학술적 접근은 호텔산업(박효연, 황지영, 2021; 이윤주, 지윤희, 2021; 조윤희, 2022)에서 일부 다루어지면서 미진하게 논의되고 있다. 관광학계에서는 학술적인 맥락에서 위케이션 개념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여 실무적으로만 전해지던 위케이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케이션 관광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 위케이션 관광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일부 연구(Shin et al., 2023)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진행된 연구 또한 척도개발 연구로 위케이션 참여자의 관광경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과 현상이 포함되며 시대적·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위케이션을 논의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적합한 연구방법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다. 근거이론은 연구영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Birks & Mills, 2015). 새로운 영역을 양적연구로 논의한다면 사회현상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연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이진희, 김남조, 2021). 근거이론은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므로(Corbin & Strauss, 2019) 위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학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보다는 근거이론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케이션 개념을 고찰한다. 위케이션 개념을 고찰하고 기

존 관광경험과 다른 위케이션 관광경험의 특성을 도출한다. 둘째, 위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이론적 틀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케이션 개념과 위케이션 관광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케이션 관광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사례분석 또는 실무적 관점만을 중시해 온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이 연구는 학술적 문헌의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는 위케이션에 대한 학술적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양적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포스트모더니즘 관광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를 상징하는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려는(탈근대) 사상적 조류를 의미한다. Rojek (2002)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사회의식의 변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특징을 모더니티 관련 사고와 행위 범주에 대한 불안감, 변동의 방향이 포스트모더니티의 추상적 형태로 정해지기를 기대하는 성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 철학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조광익, 2006: 293). 근대철학은 실재를 총체적이고 획일화된 것으로 파악해왔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성과 이질적인 관점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과 관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형식성의 와해를 주장한 해체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므로 관광활동에서도 여러 양상을 발생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일상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주지하듯이 전통적 관광은 일상과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에 따라 관광과 일상의 분리는 더 이상 관광 활동에서 필수조건이 아니다. 관광객들은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떠나지 않아도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이제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미학화 된다(조광익 외, 2022: 73). 이러한 관광과 일상의 와해는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의 가장 큰 흐름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관광의 영역이 넓어진다. 관광활동은 보편화된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화 되어가고 있다(Veal, 2021).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간은 자신의 참여 없이 구축된 방식에 적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사회적 현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변화시킨다(López-Bonilla & López-Bonilla, 2008). 이러한 변화 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틀을 해체하므로 차별성, 다양성을 가진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전과 달리 여가를 보내는 방식 안에서 진정성을 찾고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원주의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영역의 여가를 제시한다(Rojek, 2002; Veal, 2021).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관광 대상보다 관광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 관광객은 관광을 소비사회에서의 소비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즉, 동일한 관광대상을 보더라도 개인의 배경, 동기, 욕구 등을 바탕으로 관광객이 만드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별 관광경험에 대한 상대적 해석이 필요하다(조광익 외, 2022: 46).

요컨대, 오늘날 관광에서 나타나는 업무와 관광 사이의 모호함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근대의 획일화된 경향에서 해체하여 탈공간화 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의 큰 특징이다. 소비사회에서는 여가도 소비의 한 품목이자 기호이며 모든 것이 기호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소비의 대상이기도 하다(조광익, 2006: 309).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에서는 관광 또한 소비의 대상으로 일상 생활권과 관광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광활동의 공간적 경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공간적 이동의 의미가 감소되어가고 있다. 개인은 공간 및 장소를 구분하고 관광경험을 획일화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관광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고정된 기존 틀(규격)에서 탈피하여 해체하고 비고정성을 추구하는 관광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관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뉴노멀 시대 새로운 업무트렌드로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다. 워케이션은 업무(work)와 방학(vacation)의 합성어로 휴양지나 관광지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Matsushita, 2021). 여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푸코는 '이질적 공간(heterotopic space)'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질적 공간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과 장소를 단일한 실제 장소에 병치시키는 것이다(Topinka, 2010).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와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거대한 전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케이션과 연결될 수 있다. 워케이션은 업무공간과 관광공간이 결합되면서 관광 형태와 업무 형태에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듯 워케이션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성과 이론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디지털 노마드 및 워케이션

프랑스 철학자 Gilles Deleuze는 저서 <Difference and Repetition>에서 노마드(noma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Ali, 2011). 노마드라는 용어의 배경에는 노마디즘이 존재한다. 노마디즘(nomadism)은 그리스 어인 nom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의미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며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태를 의미하며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을 의미한다(Marder, 2016).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살 곳과 일할 장소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주의를

나타내고자 디지털 노마디즘이라고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디지털 노마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물리적·시간적 소모가 큰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 유용하게 변화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처음 등장 당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통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비대면 원격작업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활용된다(Mancinelli, 2020). 디지털 노마드는 단순히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면 재택근로자와 달리 독립적 장소(예: 관광지)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근로자이므로(Willment, 2020), 재택근무자와는 여가,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차별화된다.

디지털 노마드는 비교적 최근부터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학자마다 관점이 상이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를 비대면 온라인 원격업무(Mancinelli, 2020; Reichenberger, 2018), 독립적 위치(Nash et al., 2021), 기존 업무 구조 거부(Cook, 2020), 여가/여행 등 삶의 가치 추구(Aroles et al., 2023) 그리고 성과주의(Richter & Richter, 2020)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도 디지털 노마드가 유연성 및 이동성,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행복한 개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Hermann & Paris, 202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디지털 노마드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경험을 통하여 가치를 형성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배경이 되어 나타난 현상을 위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위케이션은 휴양지나 관광지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여 관광지에서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와 맞물리는 개념이다. 관광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디지털 노마드와 위케이션 참여자는 단순한 재택근무에서 벗어나 여가, 관광을 융복합하여 개인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이

윤주, 지윤호,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케이션을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Strauss 학파의 근거이론

근거이론은 경험에서 추출된 자료(data)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최초 근거이론은 Glaser and Strauss (1967)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객관주의적 실재론의 관점을 취한다. 이후 근거이론에 대한 관점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귀납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증적 근거이론과 참여자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해석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졌다(김소혜, 2023). 해석주의적 관점은 점차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진화하였으며 실용주의적 근거이론 또는 진화된 근거이론으로 지칭되었다.

이렇듯 근거이론은 갈래가 나뉘면서 진화되어왔지만, 공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영역에 관한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Birks & Mills, 2015). 그 이유는 근거이론이 개인 또는 대규모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검증된 절차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일반 이론뿐 아니라 실질적 이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Corbin & Strauss, 2019). 위케이션은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어 왔을 뿐 학술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포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은 자료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연구 방법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연구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근거이론은 질적연구와 심층적 접근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깊이와 풍부함, 양적연구에 내재된 논

리, 엄격함을 결합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Walker & Myrick, 2006). 이 접근 방식은 기초자료로부터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이론의 엄격한 기초를 형성하게 하는 실용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경험 연구 사이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다(Glaser & Strauss, 1967). 이러한 간극 보완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이 발견된다면 추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2. 질문지 구성

연구자는 심층인터뷰에 적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초기 질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질문은 근거이론 평가 경험이 있는 7인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가 심사하였으며 의견을 바탕으로 11개로 축소되었다. 질문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해 본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게 질문지 형태, 체계 등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거쳤으며 예비연구참여자 3인에게 모호한 표현, 중복 질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문지 수정과정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으로 이어진다(Campbell et al.,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질문을 도출하였다.

## 3.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질적연구에서는 표본의 적절성이 중요하다. 표본의 적절성은 연구현상에 대하여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연구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미한다(Morse & Field, 1995). 이 연구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첫 번째 자료수집 이후 분석을 하며 분석을 통해 개념과 추가질

문을 생성하고 더 많은 자료수집을 유도하는 과정이므로 모든 범주가 발전되고 통합되는 연구지점까지 계속된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구는 1차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위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위케이션이 업무와 관광을 병행하는 활동인 만큼 관광경험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적차원과 질적차원을 고려하여 빈도와 기간을 확인한 후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양적차원의 관광경험은 일반적으로 관광자가 여행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로 측정되며 질적차원에서는 체류기간과 참여활동의 다양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Baloglu, 2001; Gustafson, 2014; Tussyadiah & Pesonen, 2016). 장기체류 관광의 실제 기간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대개 10일 이상으로 간주된다(Tkaczynski et al., 2010). 따라서 10일 이상, 2회 이상 위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이후 위케이션 중 업무와 관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점을 두었는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관광활동이 5점 이상, 업무활동이 3점 이하가 되는 대상자만을 선별하였다.

자료수집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연구자는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Prior (2018)는 라포형성 방법으로 연구자의 소속 설명과 공감을 제안한다. 소속은 연구참여자와의 연대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감은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인정하거나 일치시키는 것을 넘어 편안함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이나 질문에 대한 신속한 응답 및 유사 경험의 공유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평가된다(Novick, 2008). 이에 따라 연구자는 소속을 명확히 밝히고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먼저 공유한 뒤 연구와 관련된 사담을 나누었다. 이후 본 질문에 앞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도입질문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간 유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위케이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응답에 대

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정,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질문에 대해서 단답을 할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풍부한 응답을 유도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 A의 자료를 수집한 후 당일 전사를 거쳤다. 전사를 거친 데이터는 개념화 되었고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추가질문을 생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 B는 A에게 한 질문을 포함하여 분석에서 생성된 새로운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었으며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내용적 포화에 달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 인터뷰를 종료한 결과, 16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 4. 연구윤리 확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심층 인터뷰 전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연구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예상되는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고 인터뷰 녹음자료에 대한 비밀보장과 익명화, 연구 도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에 관한 개인정보는 연구참여자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공개될 것 인지를 확인하고 기술했다. 응답자 표기는 연구자 이외 연구참여자 당사자만이 식별할 수 있는 방식(예: 알파벳 사용)으로 기록하였다.

####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 학파(Corbin & Strauss, 2015/2019)가 제안한 분석체계인 개방코딩, 분석의 정교화, 이론통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코딩은 개념화 과정을 의미한다(이진희, 김남조, 2021).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분석의 정교화는 기존 축코딩의 개념으로 개방코딩에서 생성된 범주와 상위범주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단계와 유사하며 이론통합은 범주를 통합하고 이론을 다듬는 단계로 핵심범주를 도출한다(Corbin & Strauss, 2019). 핵심범주는 행위패턴에서의 과정을 설명해주므로 통합, 밀도, 포화, 완전함, 초점 제한 측면에서 근거이론 형성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분석은 지속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s)을 활용하였다. 지속비교방법은 귀납적 범주 코딩과 관찰된 모든 현상을 동시에 비교하여 연관 짓는 과정을 거친다(Glaser & Strauss, 2017). 이러한 과정은 관계의 발견, 즉 가설 생성은 원자료 분석에서 시작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세분화를 거치고 비교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과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Goetz & LeCompte, 1981). 이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단어나 문장 단위로 검토하는 줄 단위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개념화는 Corbin and Strauss (2019)가 설명하였듯 유사한 자료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위케이션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생성하고 그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생성하였다. 이후 이를 비교하여 범주를 생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들은 자료 분석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자료 분석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네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네 가지 기준은 Guba and Lincoln (2001)이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	성별	나이	동반	목적지	기간	횟수	관광활동	업무활동
A	남자	30대	-	거제	70일	2	7	3
B	여자	30대	-	제주	14일	3	6	2
C	남자	30대	-	제주	20일	2	7	2
D	여자	40대	-	강릉	12일	2	7	1
E	남자	50대	-	여수	60일	2	7	2
F	남자	20대	-	제주	10일	2	5	3
G	여자	20대	-	남해	14일	3	6	2
H	여자	20대	-	제주	15일	4	7	1
I	여자	30대	-	제주	21일	3	6	2
J	남자	20대	-	제주	20일	2	5	2
K	남자	30대	-	강릉	15일	2	6	1
L	여자	40대	3	제주	14일	3	7	1
M	남자	30대	-	제주	10일	3	7	2
N	남자	40대	-	목포	12일	3	6	3
O	남자	30대	-	경주	11일	2	7	2
P	여자	30대	-	속초	30일	2	7	1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신뢰성은 현장에서 동료 검토, 예비표본 검토와 같이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여 연구결과가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적 타당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의존가능성은 신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다(Guba & Lincoln, 2001). 전이가능성은 연구 수행 과정을 다른 연구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충분히 서술하였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Bembridge et al., 2011).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은 양적연구의 객관성(objectivity)과 유사하며 연구과정에서 구성, 주장, 사실 및 자료의 증명가능성과 관련한 개념이다(Guba & Lincoln, 2001). 이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수행 과정을 다른 연구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서술하였다. 또한, 분석결과가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예비참가자에게 검토를 거쳤으며, 방법론 및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해

전문가 7인의 평가를 5회 실시하여 지속해서 평가의견을 반영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이 연구는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 까지 표본을 수집하여 〈표 1〉과 같이 16명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20대 4명(25%), 30대 8명(50%), 40대 3명(18.75%), 50대 1명(6.25%)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위케이션 시 동반인원 없이 대부분이 1인(93.75%)으로 참여하였으며 특수한 케이스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위케이션 목적지는 제주(50%)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 횟수는 2회(56.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케이션 참여자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관광목적지에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으며 해안 인접 지역 또는 해안가에 주로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코딩 패러다임

### 1) 개방코딩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념화는 단어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으며 단어의 구 또는 절 등에서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면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중요한 점은 개념을 단순히 목록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들어가는 생각, 속성 및 차원에 따라 발전시키는 과정이므로 (Corbin & Strauss, 2019) 연구자는 자료를 분해하고 메모에 있는 자료를 고찰하여 그 의미를 바탕으로 개념화하였다.

### 2) 분석의 정교화

#### (1) 패러다임

분석의 정교화 단계는 이론을 개발하고 작용-상호작용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단계이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구는 범주 간 왜, 어디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집중하며 유사한 개념의 속성, 차원을 비교하면서 범주들을 연결하였다. 비교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작성한 메모를 통해서 지속해서 비교하였으며 맥락을 코딩하는 과정에서도 메모를 추가 작성하면서 비교하였다. 분석의 정교화는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이 연구는 범주 중심으로 개념을 체계화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러다임 도구를 활용하였다. 패러다임은 크게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상탈출 욕구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은 COVID-19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은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위케이션 경험, 업무방식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심리적 안정감,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긍정적 사고와 주관적 성장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단계적 흐름에서 작용-상호작용은 서로 연관되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일상탈출 욕구는 새로운 관광트렌드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COVID-19는 위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위케이션을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업무방식과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편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도 비판적 성찰은 지속해서 일어나고 이것은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특히, 비판적 성찰은 위케이션 관광경험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더 나은 삶으로 도약의 준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진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개념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시킨 결과, 개념은 93개로 코딩되었으며 하위범주 24개, 상위범주 9개가 도출되었다.

#### (가) 일상탈출 욕구

연구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무력감과 삶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우울감을 내비쳤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와 직장, 사회생활에서 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지속적으로 쌓여 정신적인 과부하를 겪고 있는 것을

〈표 2〉 분석의 정교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삶에 대한 지루함, COVID-19 이후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무력감, 피로감, 의욕저하, 인간관계에 대한 우울감, 사회생활에서 오는 관계 어려움, 정신적 과부하	무력감 인지	일상탈출 욕구
업무진정성 의심, 업무에서 오는 가치관 희생 증폭, 실적에 치중하는 업무 회의감, 세대 간 업무에 대한 격차에서 오는 괴리감	번아웃	
특정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삶,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축소, 기존 삶에 대한 상실	COVID-19로 인한 제한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
화상회의, 성과제도 도입, 하이브리드 업무, 재택근무	근무형태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 되는 서비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의 소멸, 디지털 마케팅 성행,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	기업 내 분위기 변화	
기대한 관광경험과의 차이, 새로운 업무형태에 대한 혼란, 대면근무와의 업무방향 차이에서 나타나는 긴장,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업무경험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움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위케이션 경험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관광경험, 모든 계획을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관광경험, 가이드(전문가)가 없는 관광경험, 업무와 병행되어 있어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관광경험	주도적 관광경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고 싶은 목적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관광경험, 업무를 하다가 계획 없이 근처 관광지 방문	즉흥적 관광경험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위케이션 경험
함께 어울려 다니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소가 큰 관광경험,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관광경험,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관광경험	독립적 관광경험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광경험,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관광경험,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관광경험, 숙소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근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경험	지역적 관광경험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위케이션 경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관광경험, 일상에서 장소만 이동된 형태의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관광경험, 일하는 시간에도 관광이 포함되는 경험	일상적 관광경험	
작은 일에 반응했던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온 과거에 대한 후회, 삶을 상대평가하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감회, 사회생활에서 한번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자기성찰	업무수행 방식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업무태도에 대한 반성, 기존방식을 고수하던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업무시간만 채우려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	업무에 대한 성찰	
인간관계에 대한 반성,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직장상사에 대한 이해, 소중한 관계에 대한 반성, 가정에 대한 되새김	관계에 대한 성찰	심리적 안정감
지친 일상 탈출, 삶에 대한 리프레시, 힘들었던 삶에 대한 치유	스트레스 해소	
시간적 여유로움, 심리적 여유로움, 업무에 대한 여유로움, 삶에 대한 여유로움	여유로움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
세대 간 격차 인정, 세대 간 문화 이해를 위한 공감대 형성, 개인의 성향 존중,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	세대에 대한 이해	
장기간 체류관광에 대한 여행일지 작성, 관계회복에 대한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 기술 습득,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실천, 자기관리역량 향상	변화를 위한 실천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
아이디어 구상,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 예상, 새로운 방식 고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일반화된 생각에 대한 재확인, 확고한 관념에 대한 다른 기회 생각, 편견에 대한 배제, 지역에 대한 색안경 벗기	고정관념 타파	긍정적 사고와 내면 성장
개방적 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과 유연한 생각, 가치의 변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배움, 트렌드의 수용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인간관계에 대한 적극성, 삶의 목표 설정과 적극적 태도	자신감 상승	긍정적 사고와 내면 성장
도전적인 삶, 주도적인 삶	삶의 주제로써 성장	
타인의 비판 수용, 겸허한 자세, 개인의 문제점 인정,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차이 용납, 자기객관화, 역지사지	비판 수용	

인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사회생활과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서 번아웃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해 기존 세대와 비교하여 업무책임감에 심한 격차를 보이는 Z세대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후에 삶이 너무 반복돼서 지쳐요.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는 상황도 계속되고 너무 무료해요. 최근이나 코로나 끝났다고 백신접종도 없고 그런 거지 작년 말만 해도 무슨 백신도 맞고 뭐도 하고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는 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것들 없이 너무 챗바퀴처럼 일상이 굴러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 커요.” (연구참여자 A)

“요즘은 야근문화가 있는 곳은 있지만, 예전보다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적응해야 될 텐데 대체 왜 사무실에 안 나와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눈에 안보이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기성세대의 고집이죠. 업무뿐 아니라 그런 세대가 가진 편견 때문에 일 하는 게 불편해요.” (연구참여자 G)

(나)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

연구참여자는 일시적인 환경적 요소로 COVID-19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물론 COVID-19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을 조절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COVID-19는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Lakhan et al., 2020). COVID-19로 인해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 삶과 달리 일부 제한된 삶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였다.

“해외라도 한번 다녀오면 뭘 그리 챙겨야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변화를 조금 주고 싶었을 뿐인데 백신접종 증명서도 내야 되고 음성

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음성이라고 나와 버리면 거기서 체류해야 되고 그 돈도 제가 다녀야 되는 거고 ...중략... 삶이 편하지 않고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이 너무 불편해요. 계속 눈치 보고 의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B)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참여자는 전통적 방식과 다르게 기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체감하고 있었다. 기술은 비대면 원격작업자를 증가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켰다(Mancinelli, 2020). 기업에서는 Zoom이나 행아웃을 이용해 편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성과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업무수행 방식이나 형태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기업의 문화와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체 생활보다 개인 강점과 성향을 인정하고 휴가를 과거에 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Zoom이 재작년 정도부터 엄청나게 뚝뚝아요. 그거 때문에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사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기회도 없었는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의 강제적으로 도입된 문화긴 한데 엄청 편하거든요.” (연구참여자 D)

“서비스가 좀 더 진화되서 이제는 기술적인 강점을 잘 살려서 제공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컴퓨터 랑 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고부가 가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일회성에 가깝다는 게 특징이에요. 개인한테 좀 특화돼서 어떤 상품 결제할 때도 개인한테 맞춰서 결제창 링크를 따로 걸어드리고 있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도 용

역발주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연구참여자 D)

(라)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워케이션 경험

연구참여자지는 워케이션을 가서 기대한 관광경험과 실제 경험 간 차이를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디지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여가와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Sintas et al. 2015). 연구참여자지는 관광목적지에서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지각하면서 업무보다는 관광활동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업무가 병행되어 있다는 점에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지는 워케이션 관광경험이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도적 관광경험과 관련하여 기존 관광경험의 경우 가이드나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인들과 함께 관광활동에 참여했지만, 워케이션은 특성상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활동을 본인이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언급하였다. 즉흥적 관광경험은 시간적 여유를 느끼면서 목적지를 계획하지 않고 방문하거나 업무 중 근처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독립적 관광경험은 COVID-19 이후 관광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며 주로 단독으로 방문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표현하였다. 지역적 관광경험은 장기간 체류하면서 숙소 근처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숙소를 기준으로 근처 유명하지 않은 관광목적지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해에 도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기존 관광은 공간의 명확한 변동에 차이를 두었다(Pizam & Jeong, 1996; Umanets et al., 2014). 반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일상적 관광경험은 업무와 관광의 경계 그리고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면서 점점 관광이 일상화되고 있고 일상 또한 관광화되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원래는 맛집 방문하거나 아니면 뭘 먹고 여기 갔다가 저녁은 뭘 먹고 스케줄을 다 짜놔었는데 워케이션에서는 스케줄이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관광지 근처 아니면 관광지에서 있으니까 아 여기 가야겠다 이러면 정말 생각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연구참여자 F)

“어떻게 업무를 보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막상 가서 해보니까 심적으로는 엄청 편한데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원래는 그래도 사무실에서 모르는 것도 옆자리 동료한테 바로 물어보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잘 모르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오는 긴장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H)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면서 구경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원래랑 비교해 본다면 어디서 일하던 제가 관광지 안에 있고 좀 더 독립된 별채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중략...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휴양도 하면서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고 정말 나를 위한 여행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J)

“가족여행 겸 일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중략... 일 하는 그 순간에도 관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평소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장소가 이동되고 그 안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연구참여자 L)

(마) 업무수행 방식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에 대한 성찰, 업무에 대한 성찰, 관계에 대한 성찰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행동했었던 자기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주체적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을 의식해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취했던 과거에 대하여 후회하였다. 관광경험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보고되고 있다(Sheldon, 2020). 반면,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업무에 관한 성찰을 보였다. 이들은 업무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이나 변화하는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업무수행 방식만을 고수하려던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성찰은 더 발전되어 타인, 동료, 직장상사, 소중한 관계, 가정 등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가 굉장히 작은 일에도 반응해요. 아마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혼자 와서 일도 하면서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좀 여기 와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엄청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B)

“나이 때문인지 처음에 하던 방식이 제일 편해서 그걸 계속 고수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고 그게 계속 시대도 변하고 회사 분위기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변하니까 사실 저도 따라갔어야 됐는데 결국은 트렌드를 못 읽고 제가 편한 방식을 고수한 거겠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 제가 그걸 다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게 또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어려움이나 그 방식을 제가 못 따라가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그랬었는데 진작 바뀔걸 빨리 배웠어야 했나 봐요.” (연구참여자 C)

(바) 심리적 안정감

연구참여자들은 위케이션 후 스트레스 해소된다 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치진 일상을 탈출하여 삶에 대해 재충전하였으며 힘들었던 삶에 대하여 치유 받

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은 위케이션이 일반적인 관광경험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기존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심리적으로 여유로움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존에 있던 일상생활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공간적인 변화가 크게 느껴져서 애초에 회사랑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고 그래서 좀 더 일상이랑 떨어져서 그런가요? 더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F)

“항상 시간에 쫓긴단 생각을 했는데 여행도 일박이일가면 이박삼일 갔어야 됐나 후회하고 매번 그랬거든요. 더 길게 가도 시간은 모자란 거 같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새로운 것을 최대한 많이 봐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한 곳에 두고 숙소 잡아두고 거기 근처로 돌아다니 다보니까 여유롭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촉박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다는...” (연구참여자 D)

(사) 더 나은 삶으로 도약 준비

연구참여자들은 세대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발생하는 격차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위케이션 이후 개인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기술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이나 이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식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 스스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폰이나 유튜브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안할 수 없으니까 저도 맞춰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도 보고 해서 지금 이 사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자 변화를

맞추자 하는 생각으로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E)

(아) 새로운 시각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자는 다양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일반화된 생각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확고한 관념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케이션 하면서 뭔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있니까 결재 올리거나 할 때 불편한 점들이나 피드백 받을 때 헛갈렸던 점을 생각해보니까 이걸 발전시키면 앞으로 또 그런 식의 업무를 볼 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거죠. 그래서 여기 좀 바꿔보고 저기 좀 바꿔보고 손대보고 큰 틀은 기존걸 준수해서 쓰겠지만, 지금 바뀐 업무스타일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건 새롭게 고민해보고 디자인해보고 그러고 사용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J)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지방에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지역끼리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역세고 유하지 않고 그렇다고 들어서 정말 그런 건가 하면서 좀 색안경 끼고 왔거든요.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냥 말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친절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생겨서 지역적 선입견이 깨졌고...” (연구참여자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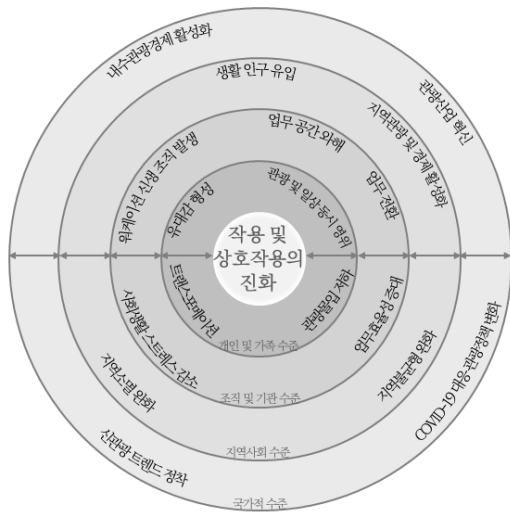
(자) 긍정적 사고와 주관적 성장

연구참여자자들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들은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상적인

관광경험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관광경험은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인간을 발전시킨다(채혜정, 김남조, 2022). 이 연구에서는 자신감 상승이나 도전적인 삶의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상승은 워케이션의 주도적 관광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와 관광이 병행되어 있는 워케이션 특성상 개인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들은 보다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주체로써 성장하고 있었다.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전적인 삶을 살고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 있었으며 개인이 무엇인가를 직접 주도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적인 태도는 워케이션 관광경험에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강직한 태도를 버리고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지사지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워케이션 하면서 제가 밥도 다 해먹고 누구한테 의지도 안하고 알아서 해야 되니까 나름의 개척 정신이랑 도전정신이 생긴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는데 이런 걸 스스로 실천하고 다 해내는 걸 보니 나도 정말 도전적이고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A)

“모든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변해야 되는 점을 생각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고쳐야 될 부분을 말해주는 건데 그걸 몰랐더라고요. ...중략... 지금은 오히려 그런 관심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림 1〉 위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조건/결과 매트릭스

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D)

“저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일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가치? 그런 시선으로 살고 있어요. 좀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된 느낌이고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나까 삶이 즐거워 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M)

(2) 조건/결과 매트릭스

조건/결과 매트릭스는 패러다임에서 정교화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도구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건의 범위 및 결과의 범위, 조건, 작용-상호작용과 결과 간 관계의 복잡성, 행위자와 관점,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한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구에서는 4단계 수준의 조건/결과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1단계는 개인, 가족 수준, 2단계는 조직, 기관 수준, 3단계는 지역사회 수준, 4단계는 국가적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Corbin and Strauss (2019)에 따르면 이 수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수준 체계가

변화될 수 있지만,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영역은 어떤 항목으로도 언급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첫째,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위케이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둘째, 인터뷰 내용 중 일반적인 조직수준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하위 조직에 대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조건/결과 매트릭스는 위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작용 및 상호작용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첫째, 개인 및 가족 수준에서는 관광몰입이 저하되고 가족 간 또는 인간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미시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적 조건으로는 관광 및 일상을 동시에 영위 가능하다는 사회적인 조건이 상호작용한다. 둘째, 조직 및 기관 수준에서는 개인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사회생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살펴본다면 업무공간의 와해, 업무 전환이 발생하고 위케이션 관련 신생 조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의 경제상황,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지역소멸완화, 지역불균형 완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이 가능하므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수준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여 관광정책이 변화하고 내수관광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이자 트렌드로 위케이션이 정착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케이션 관광경험에 대한 작용 및 상호작용의 진화는 다양한 행위자와 관점을 고려하게 해주어 연구의 복잡성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된다.

3) 이론통합

이론통합은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과정이 선행된

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며 연구 결과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Strauss (1987)는 핵심범주의 선택기준을 5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핵심범주는 다른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한다. 둘째, 핵심범주는 자료 속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어야 한다. 즉,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의해서 지속해서 언급되어야 한다. 셋째, 범주 간 연결 과정 속에서 제시되는 설명은 논리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핵심범주는 일반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향후 연구를 위하여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개념들과 통합함에 따라 분석이 정교화해지며 이를 통하여 이론적 깊이가 있어야 한다. 즉, 핵심범주는 자료가 나타내는 주요한 설명 외에도 연구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범주 발견 이후 범주의 통합을 통하여 이론을 구성한다. 도표와 그림(diagram)의 배치 및 수정을 반복하면서 이론적 구조를 탐색하며 이를 통해서 이론을 개발한다(Corbin & Strauss, 2019). 이를 통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를 다른 이론과 연계하여 향후 연구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추가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Birks & Mills, 2015).

이 연구의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체류 관광경험’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핵심범주 도출은 위케이션이라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연결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단어의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빈번하게 도출되는 단어는 새로운(새로운 경험,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여행/관광 형태, 새로운 트렌드 등), 업무(일, 회사, 회의, 서류제출 등), 관광(여행, 관광, 놀기, 휴식, 휴양, 관광지 등), 일상경험(일상, 집 등), 장기간(장기체류, 긴 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배치시키고 추상적인 이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핵심범주를 기준으로 이론

을 다듬는 작업이 요구된다(Corbin & Strauss, 2015/2019). 이를 위하여 연구의 이론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보완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결을 중심으로 핵심범주를 ‘TWD(tourism+work+daily) 장기체류 이론’으로 통합하였다.

#### 4. 종합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특성은 위케이션에서 잘 드러난다. 위케이션은 관광영역에서 특정 관광지를 방문하고 그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던 관광경험을 해체하였으며 업무에서는 사무실 출근, 정해진 시간이라는 구조를 해체하였다. 이러한 해체주의는 위케이션 참여자에게 새로운 관광경험을 제공하였다. 이 관광경험에 대하여 일부 학자(Reichenberger, 2018)는 관광인지 업무(비즈니스)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며 그러한 구분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이윤주, 지윤호, 2021; Aroles et al., 2023; Herman & Paris, 2020)에서는 위케이션을 업무나 관광 맥락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논의해왔다. 또한, 위케이션의 명확한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연구(박효연, 황지영, 2021; 이윤주, 지윤호, 2021)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개념은 주로 업무 관점(Mancineli, 2020)이나 관광 관점(김은희, 홍주연, 2021)에서 제시되었다. 반면, 이 연구에서 위케이션은 관광-업무, 관광-일상이 결합된 형태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우리가 위케이션 개념을 관광-업무, 관광-일상과 같이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융복합된 개념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디지털 근로자의 업무와 여가는 이 두 개가 더 이상 반드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행연구(Sintas et al., 2015)에 근거하여 관광경험을 정확히 분리하기보다는 위케이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을 관광경험의 한 형태로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Reichenberger (2018)가 제기한 위케이션의 경계(관광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연구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위케이션에서 크고 작은 심리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위케이션 관광경험이 기존과 다른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도적 관광경험은 모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위케이션은 일반 관광경험과 달리 타인이나 전문가에게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에 모든 활동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즉흥적 관광경험은 기존 관광과 달리 대부분의 관광지를 계획 없이 방문하는 것이다. 기존 관광경험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야할 목적지를 어느 정도 계획하였다면 위케이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독립적 관광경험은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 요소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관광경험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광경험에서는 타인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위케이션은 보다 독립된 형태의 관광경험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적 관광경험은 지역문화 체험이나 지역주민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형태의 관광경험이다. 연구참여자는 숙소를 기준으로 근처 관광지와 비유명 관광지를 세부적으로 둘러볼 수 있어 지역 차이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관광경험은 위케이션이 장소만 변할 뿐 모든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관광경험이 명확히 일상과 관광지 방문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위케이션은 가족을 동반하여 관광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관광경험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광트렌드 경험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전환이나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새로운 관광경험이 전환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는 일부 연구(박창환, 이훈, 2019)에서 드물게 보고되었다. 이 결과에서 새로운 자극은 개인의 변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는 위케이션을 통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핵심범주와 이론 생성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 체류 관광경험'으로 위케이션을 관광과 업무로만 분류하던 기존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일상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핵심범주를 기준으로 우리는 TWD(tourism+work+daily) 장기체류 이론을 생성하여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TWD 장기체류 이론은 위케이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환경변화 및 욕구로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관광경험에서 의미를 찾는다. 다음 과정으로 비판적 성찰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행동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위케이션 동안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의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긍정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인지한다.

요컨대, 위케이션은 업무와 관광, 일상이 혼재된 형태이다. 이 형태는 포스트모더니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던 기존 관광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위케이션은 주도적, 즉흥적, 독립적, 지역적, 일상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활동이 체류형태로 장기간 이루어지면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내면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지한다. 즉, 위케이션 관광경험은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케이션과 같은 관광트렌드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워케이션은 실무적 관점에서만 일부 논의되어 왔으며 학술적 관점에서는 그 개념이 규명조차 뚜렷하게 되지 않은채 일부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워케이션 개념을 고찰하고 기존 관광경험과 다른 특성을 도출하여 워케이션 관광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케이션 참여자는 워케이션 활동 안에서 관광경험과 업무경험을 분리하지 않고 워케이션 자체를 하나의 관광형태이자 업무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광경험이 관광활동 중 나타나는 모든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행동에 따라 형성되는 주관적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는 정의와 일맥상통하게 워케이션은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케이션 관광경험은 주도적 관광경험, 즉흥적 관광경험, 독립적 관광경험, 지역적 관광경험, 일상적 관광경험으로 구분되었다. 워케이션 관광경험의 범위는 워케이션 중 관광목적지에서 업무를 하는 형태까지 관광으로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워케이션 안에서 업무와 관광뿐만 아니라 일상도 같이 녹아들어진 통합적인 관광형태로 이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워케이션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광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워케이션이 관광과 일상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던 전통적인 관광활동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워케이션 참여자의 관광경험은 크게 5단계로 나타났다. 이 단계는 환경 변화 및 욕구 발현 단계, 새로운 관광경험 단계, 비판적 성찰 단계, 변화를 위한 행동 시도 단계, 내면 전환 인지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 단계에는 9개 상위범주가 포함된다. 핵심범주는 '새로운 자극으로써 관광+업무+일상의 장기체류 관광경험'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핵심범주를 토대로 반복성과 일관성에 유의하면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TWD(tourism+work+daily) 장기체류 이

론'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관광형태를 살펴본 있다는 점이다. 워케이션은 규격화된 업무시간, 관광이 일상과 구분된다는 구조를 탈피해서 시간적·공간적인 해체를 보이고 있었다. 기존 관광이 오락성을 추구하는 형태였다면 워케이션은 배움이 나타나거나 성찰하는 등의 맥락으로 세분화되면서 기존 관광경험의 형태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였다. 이는 워케이션 개념이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만 보고되어 오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술적 개념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는 장기체류 관광에서의 전환적 요소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워케이션을 통하여 비판적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성찰은 단순한 내면 성찰뿐 아니라 업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는 워케이션 자체가 업무와 관광이 병행되어 그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상사와의 관계나 업무에 대한 자아성찰까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워케이션의 범위를 규정하고 워케이션 관광경험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여 실증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범위 및 일련의 단계는 양적연구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연구문제와 가설설정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적 및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을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워케이션 참여자는 향후 워케이션에 재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COVID-19 이후 관광산업은 축소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케이션 참여자는 재참여를 하려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워케이션을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에 대한 전

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위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쉽게 위케이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나 비용, 방식 등에 대해서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지자체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위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이 신규 관광트렌드를 수용하는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위케이션과 같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광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대부분이 해안 주변으로 위케이션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지자체는 위케이션을 일회성으로 단순히 소모하기보다는 업무와 여가, 일상을 병행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최근 1년 이내 위케이션 참여자를 포괄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에 한계가 있다. 위케이션은 국내와 국외로 분류되고 해외 기업, 국내 기업에 따라 위케이션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위케이션은 업무와 관광이 병행된 형태이므로 업무 또는 관광활동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케이션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판적인 관점의 배제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연구에서는 위케이션 중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는 내면성장 및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다소 작위적인 분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심리적 변화는 다른 형태의

관광경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심리적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패러다임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케이션만의 명확한 특성 도출에 대한 한계이다. 이 연구는 위케이션에 대한 초기 연구로 다양한 방식을 고심하고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위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새로운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뷰 질문 또는 결과 분류에서 나타나는 한계일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케이션을 보다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Lee, Jin-Hee: Conceptualization, Research design, Methodology,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riginal draft preparation).

Kim, Nam-Jo: Reviewing and Editing.

**References**

김대수 (2021. 5. 12.). 일본 위케이션 시장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431>

김소혜 (2023). 관광학에서 질적 연구를 위한 현상학과 근거이론의 비교분석. <관광연구논총>, 35(2), 97-123. <https://doi.org/10.21581/jts.2023.5.35.2.97>

김은희, 홍주연 (2021). <빅데이터 기반 신규 관광트렌드 및 사업발굴: 위케이션 후보지 발굴과 경쟁력

-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 박창환, 이훈 (2019).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 분석. <관광학연구>, 43(4), 201-27. <https://doi.org/10.17086/JTS.2019.43.4.201.227>
- 박효연, 황지영 (2021). 위케이션 활성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 임원 및 인사총무담당자 인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0(2), 161-178.
- 이윤주, 지윤호 (2021). 스마트워크 확산에 따른 호텔 위케이션 상품화 방안. <호텔리조트연구>, 20(3), 97-117.
- 이진희, 김남조 (2021). 근거이론에 기반한 팬데믹시대 잠재관광자의 관광행동 변화 경험 연구. <관광학연구>, 45(5), 57-76. <https://doi.org/10.17086/JTS.2021.45.5.57.76>
- 조광익 (2006). <현대관광과 문화이론: 푸코의 권력이론과 부르디외의 문화적 갈등이론>. 일신사.
- \_\_\_\_\_, 심창섭, 최석호, 황희정, 윤혜진, 송화성, 이윤정, 김소혜, 김형곤, 서용석, 정란수 (2022). <문화관광론: 관광 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백산출판사.
- 조윤희 (2022). 호텔 위케이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1(2), 45-59.
- 채혜정, 김남조 (2022). 웰니스관광 체험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 관광의 개념 모형 연구. <관광연구논총>, 34(1), 31-56. <https://doi.org/10.21581/jts.2022.2.34.1.31>
- Ali, A. H. (2011). *Nomad: From Islam to America: A personal journey through the clash of civilization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Aroles, J., Bonneau, C., & Bhankaraully, S. (2023). Conceptualising 'meta-work' in the context of continuous, global mobility: The case of digital nomadism.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7(5), 1261-1278.
- Baloglu, S. (2001). Image variations of Turkey by familiarity index: Informational and experiential dimensions. *Tourism Management*, 22(2), 127-133. [https://doi.org/10.1016/S0261-5177\(00\)00049-2](https://doi.org/10.1016/S0261-5177(00)00049-2)
- Bembridge, E., Levett-Jones, T., & Jeong, S. Y. S. (2011). The transfer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kills from university to the workplace: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31(3), 245-252. <https://doi.org/10.1016/j.nedt.2010.10.020>
- Birks, M., & Mills, J. (2015).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Sage.
- Campbell, J. L., Quincy, C., Osserman, J., & Pedersen, O. K. (2013). Coding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Problems of unitization and intercoder reliability and agreemen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2(3), 294-320. <https://doi.org/10.1177/0049124113500475>
- Cook, D. (2020). The freedom trap: Digital nomads and the use of disciplining practices to manage work/leisure boundaries.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22(3), 355-390. <https://doi.org/10.1007/s40558-020-00172-4>
- Corbin, J., & Strauss, A. (201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ed. (김미영, 정승은, 차지영, 김지숙, 권유림, 김윤주, 박금주, 서금숙, Trans.). Sage. (Original work published 2015)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Publishing.
- \_\_\_\_\_, & Strauss, A. L. (2017).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Routledge.
- Goetz, J. P., & LeCompte, M. D. (1981). Ethnographic research and the problem of data reduction.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12(1), 51-70.
- Guba, E. G. & Lincoln, Y. S. (2001). *Guidelines and checklist for constructivist (aka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Retrieved August

- 22, 2008, from <http://www.wmich.edu/evalctr/checklists/constructivisteval.pdf>
- Gustafson, P. (2014). Business travel from the traveller's perspective: Stress, stimulation and normalization. *Mobilities*, 9(1), 63-83. <https://doi.org/10.1080/17450101.2013.784539>
- Hassan, I. (1985). The culture of postmodernism. *Theory, Culture & Society*, 2(3), 119-131. <https://doi.org/10.1177/0263276485002003010>
- Hermann, I., & Paris, C. M. (2020). Digital Nomadism: The nexus of remote working and travel mobility.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22(3), 329-334.
- Lakhan, R., Agrawal, A., & Sharma, M. (2020). Prevalence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Neurosciences in Rural Practice*, 11(4), 519-525. <https://doi.org/10.1055/s-0040-1716442>
- López-Bonilla, L. M., & López-Bonilla, J. M. (2008). Postmodernism and heterogeneity of leisure tourist behavior patterns. *Leisure Sciences*, 31(1), 68-83. <https://doi.org/10.1080/01490400802558210>
- Mancinelli, F. (2020). Digital nomads: Freedom, responsibility and the neoliberal order.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22(3), 417-437. <https://doi.org/10.1007/s40558-020-00174-2>
- Marder, M. (2016). Anti-Nomad. *Deleuze Studies*, 10(4), 496-503.
- Matsushita, K. (2021). Work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local area in Japan. In M. Orel, O. Dvouléty', & V. Ratten (Eds.), *The flexible workplace* (pp. 215-229). Springer.
- Morse, J. M., & Field, P. A. (1995).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Nelson Thornes.
- Nash, C., Jarrahi, M. H., & Sutherland, W. (2021). Nomadic work and location independence: The role of space in shaping the work of digital nomads. *Human Behavior and Emerging Technologies*, 3(2), 271-282. <https://doi.org/10.1002/hbe2.234>
- Novick, G. (2008). Is there a bias against telephone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1(4), 391-398. <https://doi.org/10.1002/nur.20259>
- Pizam, A., & Jeong, G. H. (1996). Cross-cultural tourist behavior: Perceptions of Korean tour-guides. *Tourism Management*, 17(4), 277-286. [https://doi.org/10.1016/0261-5177\(96\)00019-2](https://doi.org/10.1016/0261-5177(96)00019-2)
- Prior, M. T. (2018). Accomplishing "rapport"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Empathic moments in interaction. *Applied Linguistics Review*, 9(4), 487-511. <https://doi.org/10.1515/applirev-2017-0029>
- Reichenberger, I. (2018). Digital nomads-a quest for holistic freedom in work and leisure. *Annals of Leisure Research*, 21(3), 364-380. <https://doi.org/10.1080/11745398.2017.1358098>
- Richter, S., & Richter, A. (2020). Digital nomads.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62(1), 77-81. <https://doi.org/10.1007/s12599-019-00615-1>
- Rojek, C. (2002). *Decentring leisure: Rethinking leisure theory* (최석호, 이진형, Trans.). Sa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Sheldon, P. J. (2020). Designing tourism experiences for inner trans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83, 102935. <https://doi.org/10.1016/j.annals.2020.102935>
- Shin, H., Lee, J., & Kim, N. (2023). Workcation (Workation) Travel Experience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s: Focusing on Conceptualization, Scale Development, and Nomological Network. *Journal of Travel Research*, 00472875231188717. <https://doi.org/10.1177/0047287523118871>
- Sintas, J. L., De Francisco, L. R., & Álvarez, E. G. (2015). The nature of leisure revisited: An

- interpretation of digital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7(1), 79-101. <https://doi.org/10.1080/00222216.2015.11950352>
- Statista. (2023). *Future trends in remote work worldwide from 2020 to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99110/remote-work-trends-covid-survey-september-december/>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rd ed). Sage.
- \_\_\_\_\_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kaczynski, A., Rundle-Thiele, S., & Beaumont, N. (2010). Destination segmentation: A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2), 139-152. <https://doi.org/10.1177/0047287509336470>
- Topinka, R. J. (2010). Foucault, Borges, heterotopia: Producing knowledge in other spaces. *Foucault Studies*, 9, 54-70.
- Tussyadiah, I. P., & Pesonen, J. (2016). Impacts of peer-to-peer accommodation use on travel patter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8), 1022-1040. <https://doi.org/10.1177/0047287515608505>
- Umanets, A., Ferreira, A., & Leite, N. (2014). GuideMe-A tourist guide with a recommender system and social interaction. *Procedia Technology*, 17, 407-414. <https://doi.org/10.1016/j.protcy.2014.10.248>
- Veal, A. J. (2021). A critique of serious leisure as theory. *Leisure Studies*, 40(4), 575-589. <https://doi.org/10.1080/02614367.2021.1879909>
- Walker, D., & Myrick, F. (2006).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process and proced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4), 547-559. <https://doi.org/10.1177/1049732305285972>
- Willment, N. (2020). The travel blogger as digital nomad:(Re-) imagining workplace performances of digital nomadism within travel blogging work.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22(3), 391-416. <https://doi.org/10.1007/s40558-020-00173-3>
- Yin, J. (2018). Beyond postmodernism: A non-western perspective on identity. *Journal of Multicultural Discourses*, 13(3), 193-219. <https://doi.org/10.1080/17447143.2018.1497640>